

세계사

34150이승호

목차

1. 제자백가
2. 유가
3. 법가
4. 도가
5. 묵가

제자백가

제자백가란 춘추전국시대, 특히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5세기 이후에 중국에서 생겨난 다수의 사상가를 이야기 한다.

공자와 맹자, 노자 등등도 제자백가라는 대집합 아래 분류되고 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끝내면 좋을까에 대한 수많은 사상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중에서 유력한 능력을 보였던 사람들이 제자 백가였다.

유가

한나라가 유가 사상을 국가 이념으로 수립한 것은 한 문제 때문이다.

한 무제 유철은 당시 유학자인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 유학을 국가적 학문으로 수용했다.

이때 유학은 국가 이념으로서 받아들여 졌고 효는 충이라는 근거로, 황제권을 격상하는 명분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중앙집권전적 체제의 정착 및 확립을 위해 '유학'을 사용한 것이다.

법가

법가사상은 전국시대 제자백가 사상 중 하나로 엄격한 법률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다.

유가의 예치주의와는 반대로 부국강병을 위한 현실적인 정치사상이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법가 사상가들은 군주의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국강병 뜻:가멸 부,나라 국,곤셀 강,군사 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력을 강하게 함.

부유한 나라와 강한 군대.

도가

도가의 특징은 무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것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무가
자연을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는 불교의 '공'사상과 비슷하다.
도가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방식 역시 자연 그대로의
삶이다.
스스로 그러한 삶, 즉 무위의 삶을 추구했다

묵가

묵가는 유가의 한 분파로써 묵자를 시조로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노동을 생업으로 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선비 풍의 유가보다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묵
가라고
불렀다. 그들은 성 쌓기나 집짓기 등에 능했으며 백성들의 요구에 순
응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검애주의도 이런 배경 속에서 싹이 텄던 것이다.그들은 유가의
허구적 정치 이념보다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출면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들이다.

유가 사상가

공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밝힌 적이 없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말을 했다.

맹자는 성선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을 주장했다.

고자라는 사람은 맹자라는 책에서 맹자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논쟁을 한 사람이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자 고자는 인간의 본성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다.

성무선악설 이라고 할수 있다.

무가의 묵자

묵자의 정치 사상은 천하에 이익되는 것을 복돋우고, 천하의 해가 되는 것을 없애는 것을 정치의 원칙으로 하고, 그 실현 방법으로서 유능하다면 농민이나 수공업자도 관리로 채용하는 '상현', 백성의 이익에 배치되는 재화 노동력의 소비를 금지하는 절용, 지배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약탈이나 백성 살상의 전쟁에 반대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서로 높이는 '비공'과 '겸애'를 주장했다.